

# '91년 원유수입 실적

-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은 사우디, 이란, 오만을 비롯한 20개국으로 부터 399 백만배럴(1,094千B/D)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9.5%가 증가한 것임.
- '91년 평균 국내수입단가는 전년대비 1.44\$/B 하락한 18.55\$/B임

	1990	1991	증 감	%
○ 원유도입량(千배럴)	308,368	399,304	90,936	29.5
(千 B/D)	(845)	(1,094)	(249)	
○ 단가(FOB, \$/B)	19.99	18.55	△1.44	△7.2
○ 금액(CIF, 백만달러)	6,462	7,835	1,373	21.3

- 석유제품수출·입을 감안한 純석유수입량을 보면 420백만배럴(1,151千B/D)로서 국내석유소비증가율(18.7%)보다 4.2% 포인트 감소한 전년대비 14.5% 증가에 그침
- '91년 총석유수입액을 보면 원유 78.3億달러, 석유제품 23.4億달러 등 합계 101.7億달러로서 전년대비 12.9%(11.6億달러) 증가하였으나, 석유제품수출액이 전년대비 85.7% 급증한 17.5억달러를 기록함에 따라서, 석유제품수출·입을 감안한 純石油輸入額은 전년대비 4.4%(3.6억달러) 증가에 그친 84.2억달러로 집계됨.

(단위: 천배럴, 백만달러)

	1990		1991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原油 수입 (CIF)	308,368	6,462	399,304	7,835	90,936 (29.5)	1,373 (21.3)
제품 수입 (CIF)	101,248	2,546	110,724	2,337	9,476 (9.4)	△209 (△8.2)
수입計	409,616	9,008	510,028	10,172	100,412 (24.5)	1,164 (12.9)
제품수출 (FOB)	42,843	942	90,026	1,760	47,182 (110.1)	808 (85.7)
순석유수입	366,773	8,066	420,003	8,422	53,230 (14.5)	356 (4.4)

註: ( )内는 增減率, 製品輸出은 國際병커링 包含

- '91년의 원유수입증가는 油公·雙龍·京仁 등의 원유정제시설증설(350천B/D, 전년대비 41.7% 증가)에 따른 원유처리량증가(전년대비 34.3%)에 기인함.

	1990	1991	전년대비 증감율
- 원유 처리량	307,281 천B/D (842 천B/D)	412,787 천B/D (1,131 천B/D)	34.3%
- 정제능력(12월말 기준)	840 천B/D	1,190 천B/D	41.7%

○ '91년 석유제품수요증가 내역을 보면, 국내석유소비 증가(전년대비 : 18.7%) 및 高硫黃 석유제품의 수출급증(전년대비 : 110.1%)에 의한 총 제품수요가 전년대비 28.5% 증가하였음.

《'91 석유제품수요》

	1990	1991	전년대비 증가율
- 국내석유소비	356,349 천B/D (976 천B/D)	423,083 천B/D (1,159 천B/D)	18.7%
- 제품수출 (병커링 포함)	42,843 천B/D	90,025 천B	110.1%
<b>總 제품 수요</b>	<b>399,192 천B</b>	<b>513,108 천B</b>	<b>28.5%</b>

○ 월별 원유수입단가추이를 보면, 걸프전쟁기간을 제외한 3월 이후 7월까지 16-17 \$/B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4/4분기 성수기를 앞둔 구매수요가 시작되는 등 국제원유수급사정이 타이트하여짐에 따라 8월 이후 계속 상승세가 이어져, 12월중 국내수입단가는 19.69 \$/B를 기록함.

〈국내 원유수입가 추이(\$/B, FOB)〉

'91.1月	2月	3月	1/4	4月	5月	6月	2/4	
26.39	21.73	16.82	21.61	16.42	15.97	16.71	16.37	
7月	8月	9月	3/4	10月	11月	12月	4/4	91평균
16.17	17.13	17.40	16.91	18.09	18.94	19.69	18.93	18.55

○ 지역별 원유수입실적을 보면,  
- 총수입물량중 中東의존도는 전년대비 0.6% 포인트 감소한 반면, 東南亞지역 및 美洲·아프리카지역은 각각 0.4%, 0.2%씩 증가하였음. (단위 :千배럴, %)

	1990		1991		구 성 비 증감율(%)
	물 량	구 성 비	물 량	구 성 비	
中 東	229,017	74.3	294,356	73.7	△0.6
東 南 亞	62,529	20.3	82,695	20.7	0.4
美洲·아프리카	16,822	5.4	22,263	5.6	0.2
計	308,368	100	399,304	100	

○ 국가별 원유수입실적으로 보면,  
- 1위 수입국은 사우디로 366千B/D(전체수입량의 33.5%)를 수입하였으며, 2위 이란, 3위 오만, 4위 U.A.E., 5위 인도네시아 등의 順임. (단위 :千B/D)

順位	1	2	3	4	5	6	7	기 타	計
1990	오 만 (174)	U A E (137)	사우디아라비아 (109)	이 란 (94)	말레이시아 (63)	인도네시아 (52)	쿠웨이트 (47)	(169)	(845)
1991	사우디아라비아 (366)	이 란 (145)	오 만 (140)	U A E (126)	인도네시아 (92)	말레이시아 (72)	에콰도르 (35)	(118)	(1,094)

○ 형태별 원유수입실적을 보면,  
- '91년 원유수입물량중 장기계약에 의한 수입구성비율이 65.6%를 차지하여 원유의 안정공급에 기여함. ♣

# OPEC와 메이저로 2원화되는 세계석유산업

**세계** 석유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 과거 세계 석유산업은 다국적 기업인 메이저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으나 70~80년대에 산유국, 특히 OPEC 국영 석유사 중심으로 전개된 상·하류부문 통합화 정책에 힘입어 현재 석유산업은 산유국과 메이저로 2원화 현상이 뚜렷하다. 산유국은 상류부문(탐사·개발 및 생산)에서 메이저는 하류부문(정제 및 판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산유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90년도 상·하류부문 종합 1위 기업은 사우디의 아람코사이며 2위는 로얄더치셸사 그리고 3위는 베네수엘라의 PDV사이다. 한편, 상류부문 1위 기업은 사우디 아람코사, 하류부문 1위는 로얄더치셸사로 양사는 '89년에도 수위를 보인바 있다. '90년 사우디 아람코사의 석유 매장량은 257.9억배럴, 석유생산은 6.279백만 b/d를 기록하였으며 RD/Shell사는 정제능력 5.476백만 b/d, 제품판매 4.962백만 b/d를 보였다.

상류부문에서 OPEC 산유국의 석유 생산량 증대는 국영 석유사의 상위권 진입을 촉진시킨 반면, 일부 메이저를 하위권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석유생산 50대 기업의 '90년도 산유량 40백만 b/d 중 OPEC 소유 기업 점유율이 51%로 메이저를 앞섰으며 이는 '89년도 점유율 49%에서 2% 포인트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메이저는 현재도 천연가스를 지배, 셸사 및 엑슨사는 천연가스 생산에서 1, 2위

를 보이고 있으며 산유국에서는 알제리 Sonatrach사가 3위에 올라 있다.

OPEC는 지속적인 상·하류부문 통합화 목표를 추구, 이의 일환으로 60~70년대 1단계 상류부문 활성화에 이어 80년대 2단계 하류부문 확충, 특히 해외 하류부문 진출에 적극적이었다. 이중 베네수엘라의 국영 PDV사는 세계 유수기업으로 부상, '90년에 종합 랭킹 3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PDV사의 '90에 정제능력은 2.298백만 b/d, 원유생산은 2.135백만 b/d로 각각 전년대비 40만 b/d, 15만 b/d를 증대시켰다. 정제능력부문은 3위('89년 : 6위), 석유생산부문은 4위('89년 : 5위)이다.

하류부문은 메이저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PDV사, 사우디아람코사 및 NICO사등 OPEC 국영 석유사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하류부문에서 PDV사는 셸사와 엑슨사에 이어 3위로 부상, BP사, 세브론사 및 모빌사와 경쟁중이다. 그러나 국영 석유사의 취약점은 제품판매율(제품판매/정제능력)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90년도 PDV사의 제품판매율은 73%, 사우디아람코사는 72%, 멕시코 Pemex사는 80%이었다. 이에 따라 국영 석유사들은 정제설비 매입에 적극적이었는데 PDV사는 미국내 Seaview 정유공장, KPC사는 Naples 정유공장(Mobil사 소유), 리비아 Tamoil사는 Collombey 정유공장(Gatoil사 소유)을 구매한 바 있다. 한편 메이저의 제품판매율은 대부분이 100%를 상회, 위탁 정제 의존도가 높았다. 이

〈표-1〉 상류부문 상위 15대 기업의 석유 경제 지표와 순위

기업명	순위		석유매장량 및 순위		석유생산량 및 순위		가채년수
	1990	1989	매장량 (백만배럴)	순위	생산량 (천 b/d)	순위	
Saudi Aramco	1	1	257,900	1	6,279	1	113
NIOC	2	3	92,850	2	3,183	4	80
INOC	3	2	100,000	5	2,125	2	129
PDV	4	5	60,054	4	2,135	6	77
Pemex	4	4	51,298	3	2,974	7	47
KPC	6	6	97,025	12	1,042	3	255
Adnoc	6	8	64,541	10	1,128	5	157
RD/Shell	8	7	10,107	6	1,890	19	15
NNPC	9	10	11,872	9	1,199	9	27
Exxon	10	9	7,150	7	1,712	13	11
Libya NOC	11	11	20,643	13	1,041	8	54
Sonatrach	12	12	9,200	11	1,063	11	24
BP	13	11	6,730	8	1,322	15	14
Chevron	14	15	3,241	14	935	18	9
Pertamina	14	14	6,284	18	761	14	23

〈자료〉 PIW('91.12.23), Special Supplement Issue

같은 의존도 심화는 메이저 소유의 정유공장 매각과 '90년도 걸프전에 따른 제품수요 강세에 기인되었다.

현재 OPEC는 적극적인 해외 하류부문 진출을 추

진중이다. 특히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사우디, UAE 및 베네수엘라 등에서의 해외 하류부문 진출이 두드러졌다. '90년 OPEC의 해외 정제능력(지분소유 기준)은 1.77백만 b/d이며 이중 45.7%

〈표-2〉 하류부문 상위 15대 기업의 석유 경제 지표와 순위

기업명	순위		정제능력 및 순위		제품판매 및 순위		판매/정제 (%)
	1990	1989	정제능력 (천 b/d)	순위	제품판매 (천 b/d)	순위	
RD/Shell	1	1	5,476	1	4,962	1	91
Exxon	2	1	4,061	2	4,658	2	115
PDV	3	6	2,298	3	1,686	7	73
BP	3	4	2,053	7	2,643	3	129
Chevron	3	4	2,154	4	2,261	6	105
Mobil	3	3	2,069	6	2,528	4	122
Saudi Aramco	7	8	2,113	5	1,520	8	72
Texaco	8	7	1,448	10	2,485	5	172
Pemex	9	9	1,679	8	1,345	9	80
Amoco	10	10	984	11	1,232	10	125
Petrobras	11	10	1,466	9	1,198	12	82
Total	12	12	887	13	1,201	11	135
NIOC	13	14	766	14	955	13	125
ENI	14	15	717	17	869	14	121
KPC	15	13	902	12	668	23	74

〈자료〉 PIW('91.12.23), Special Supplement Issue

〈표-3〉

OPEC의 해외 정제능력 보유현황 (90년말 기준)

(단위 : 천 B/D)

	지 분 소 유			공 급 협 정		
	西유럽	美 國	計	西유럽	美 國	計
알 제 리	-	-	-	-	-	-
에 콰 도 르	-	-	-	-	-	-
가 보 봉	-	-	-	-	-	-
인 도 네 시 아	-	-	-	-	-	-
이 란 크	-	-	-	-	-	-
쿠 웨 이 트	260.2	-	260.2	260.2	-	260.2
리 비 아	231.3	-	231.3	383.0	-	383.0
나 이 지 리 아	58.8	27.7	86.5	58.8	56.5	115.3
카 타 르	-	-	-	-	-	-
사 우 디	-	307.5	307.5	-	550.0	550.0
U A E	87.6	-	87.6	112.8	-	112.8
베 네 수 엘 라	178.0	618.5	796.5	220.0	680.0	900.0
計	815.9	953.7	1,769.6	1,034.8	1,286.5	2,321.3
정제능력점유율(%)	5.48	6.12	5.8	6.95	8.25	7.61

〈자료〉 OPEC REVIEW (Autum 1991), The Role of OPEC refineries in meeting European demand.

(0.82백만 b/d)는 유럽, 53.4%(0.95백만 b/d)는 美國지역이다. 이란은 캐나다, 그리스,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泰國 진출에 적극적이다. 또한 루마니아와 정제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동유럽 국가에 진출한 최초의 산유국이기도 하다. 쿠웨이트도 동유럽 진출에 적극적이며 헝가리 정유산업 현대화와 자국 정제제품판매 협정을 맺은 바 있고 리비아는 그리스에서 정유공장 지분을, 나이지리아는 프랑스 ELF Aquitaine사와 정제 및 판매협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는 서유럽과 극동지역에서 의욕적인 합작사업을 추진중이다. 베네수엘라도 독일 Schwedt 정유소 지분 37.5% 취득 등 유럽 하류부문 진출에 적극적이다.

OPEC의 해외 하류부문 진출에 따른 기대 효과는

산유국에게 안정적인 판로 보장이, 소비국에게는 공급 안보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이다. 그러나 이는 산유국과 소비국의 석유산업 여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석유의 대외 의존도가 심한 소비국에서 안정 공급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산유국의 일방적 정책 의지가 개입될 여지도 크다. 여기에 산유국 지분 이윤의 대외 유출등 소비국의 國富 손실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소비국도 자국의 하류부문 개방 대가로 산유국의 상류부문에 진출, 양 블록간 상·하류부문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예측키 어려운 국제 석유시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노는기쁨 순간이고  
일한보람 오래간다”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LNG·가스 장기 수급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천연가스수요는 앞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및 발전용 수요증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Purvin & Gertz社의 전망에 의하면 2000년과 2010년의 수요는 '90년도 수요에 비해 각각 1.7배, 2.1배 증가한 7.3TCF, 9.3TCF에 달할 전망이다. 수요증가의 1/3은 LNG로 공급되며 LNG공급은 기존의 수출국외에 카타르가 신규로 참여하게 된다. 極東아시아에 대한 LNG 공급능력은 2000년 이후에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수요는 수요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호주, 日本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폭으로 증가하며 뉴

질랜드의 수요는 2000년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국가를 비롯한, 印度, 파키스탄의 가스수요는 2010년까지 '90년의 3-5배에 달할 전망이며 이들 국가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필리핀은 2005년부터, 싱가포르는 '92년부터 發電用으로만 가스를 사용할 계획이다.

濠洲,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주요 가스 생산 및 수출국의 위치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며 濠洲의 수출량은 국내 소비증가로 인해 '95년이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는 필리핀, 파키스탄, 뉴질랜드, 印度이며 泰國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천연가스(LNG포함) 장기 수요 전망

(단위 : bcf)

	1990	1992	1995	2000	2005	2010	증가율('10/'90)
<u>수출국</u>							
濠洲	553	594	627	732	830	879	2.3%
인도네시아	480	621	687	738	874	1009	3.8%
말레이시아	196	269	444	517	570	643	6.1%
<u>자급자족</u>							
印度	354	442	591	783	908	1043	5.6%
뉴질랜드	159	167	175	199	187	136	-0.8%
파키스탄	371	420	497	637	781	909	4.6%
필리핀	-	-	-	-	14	20	-
<u>수입국</u>							
싱가포르	3	32	61	114	147	147	21.5%
臺灣	73	118	146	260	313	374	6.6%
태국	187	224	342	448	448	411	4.0%
日本	1921	2014	2234	2478	2751	2999	2.3%
韓國	120	142	259	381	525	621	8.6%

<자료> World Gas Intelligence, 1991. 12

은 현재의 자금자족에서 2000년부터는 가스 수입국으로 전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泰國는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에서 가스를 수입할 계획이며 추가로 베트남의 Bach Ho, Dai Hung유전의 수반가스 수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濠洲는 천연가스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 가스戰略案(National Gas Strategy)을 곧 발표, 가스 산업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 이 전략안의 주요 골격은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북서대륙붕의 가스를 동부지역의 인구 밀집지역과 연결하는 대륙횡단 파이프라인의 건설 촉진, 차별적인 가격제도 및 파이프라인의 독점적 사용권 폐지, 州間 가스교역의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부문별 가스수요에 있어 가정/상업용 수요가 연평균 4.2%로 가장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용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수요에서 가정/상업용과 산업용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년의 44.3%에서 2010년에는 47.1%로 높아질 전망이다. 발전용 수요는 아세안국가를 비롯하여 한국, 인도, 대만, 파키스탄의 수요증가로 인해 2010년에는 전체 가스수요의 46%를 차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의 수송용 가스수요는 '90년 현재 3bcf에서 2010년에 약 5bcf에 이를 전망이다.

LNG수요는 日本, 한국, 臺灣등의 極東아시아에서 큰폭으로 증가하며 2010년의 수요는 '90년의 2배에 달하는 7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부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까지 이들 국가의 공급계약물량은 수요에 비해 약 3.6백만톤이 부족하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부다비와의 계약연장 및 카타르의 對 日本 수출 개시로 해소될 전망이다.

LNG 수출국의 對 極동아시아 공급능력은 2000년 이후에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치에 의하면 공급능력은 2005년에 약 7.5백만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공급부족은 濠洲 북서대륙붕, 인도네시아의 Badak, 알라스카의 Yukon, 사할린의 공급이 증대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Badak 가스전의 경우 최근에 확인된 매장량은 현재 건설중인 6번째 Train에 이어 2개의 Train을 추가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Badak 근처의 신규 매장량에 대한 전망이 밝아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濠洲의 북서대륙붕(North West Shelf)프로젝트의 Angel, Goodwyn, Browse 가스田의 추가 매장량은 3~4개의 Train을 건설할 수 있는 대규모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라스카의 LNG추가 수출은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알라스카의 Yukon 프로젝트의 경우 Prudho Bay와 발데스항 근처의 액화시설까지 파이프라인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97억달러)으로 인해 높은 輸出價格(\$4/mmbtu이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할린의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 일본에 비교적 저렴한 수출가격(\$2.8-3.2/mmbtu)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가스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 및 국내 파이프라인의 건설, 가스 개발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아세안을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의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며 사할린-日本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濠洲, 한국, 日本, 泰國, 말레이시아 등은 국내 가스배관망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부문별 가스수요 전망

(단위 : bcf)

	1990	1992	1995	2000	2005	2010	증가율('10/'90)
가정/상업부문	674	771	926	1164	1368	1548	4.2%
산업부문	1270	1496	1723	2077	2443	2786	4.0%
발전부문	2043	2355	2931	3503	3974	4248	3.7%
計	4390	5043	6062	7288	8353	9192	3.8%

〈자료〉 World Gas Intelligence, 1991, 1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LNG 장기 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

	1990	1992	1995	2000	2005	2010
수 요	37.3	40.7	48.3	56.2	66.2	75.0
日本	34.4	36.4	41.1	46.4	52.4	58.0
한국	2.3	2.8	5.2	5.4	8.3	10.4
대만	0.6	1.5	2.1	4.3	5.4	6.6
수출능력						
아부다비	2.1	2.2	4.5	4.5	4.5	4.5
알라스카	1.0	1.2	1.5	1.5	1.5	1.5
호주	2.8	4.7	7.0	7.0	7.0	7.0
브루나이	5.1	5.6	5.6	5.6	5.6	5.6
인도네시아	20.1	21.0	22.6	22.6	22.6	22.6
말레이시아	6.3	6.3	11.0	13.5	13.5	13.5
카타르	-	-	-	2.0	2.0	2.0
과부족	-	0.3	3.8	0.5	▲7.5	▲16.3

〈주〉 한국의 수요전망은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자료〉 World Gas Intelligence, 1991. 12

國은 남지나해 Hainan섬의 Yacheng 가스田을 개발하여 LNG기지를 건설하고 홍콩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 또한 홍콩 근해에서 가스매장량이 발견되고 베트남이 석유뿐만 아니

라 가스의 생산 및 수출국으로 부상함으로써 2000년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본격적인 천연가스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경제연구원, 에너지 동향)

알아봅시다

EC, 에너지稅 부과 합의

유럽공동체(EC)에너지 및 환경담당장관들은 '91년 12월13일, 오는 2천년부터 CO<sub>2</sub>배출량을 지난 '90년 수준으로 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EC가 제안한 CO<sub>2</sub> 배출규제안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1배럴의 원유에 대해 최고 10달러의 에너지稅를 부과토록 합의했다.

선물거래(先物去來)

미래의 약속시일에 (3개월~6개월 뒤) 상품인도와 대금결제를 실행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계약하는 거래. 선물거래와는 달리, 매도할 증권 또는 매수할 현금이 아닌 증거금만으로 매매계약을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물과 현금을 수수하게 되는 거래이

다. 상품인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팔거나 되사들여 매매차익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선물거래소는 '92년 7월에 설립예정이다.

WTI( West Texas Intermediate )

미국의 대표적인 원유로서, 텍사스주 서부와 뉴멕시코주 동남부에서 생산된다. 1일당 생산량(B/D)은 약 43만5천배럴이고 API비중은 36이상의 초경질 원유로 유허분도 0.5%이하이다. 원래 사우디산의 아라비안라이트와 거의 같은 수준의 가격인데다 뉴욕상품거래소(NYMEX)의 선물거래 대표종목으로, 세계 원유시황의 선행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